

대중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의사들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멤버인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조교수(가운데)는 “대중 의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그날까지 의학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왼쪽은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른쪽은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조교수는 “교수님”만큼이나 “ 쌤 ”이라는 호칭에 익숙하다. 웹소설가 겸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원장과 함께 닥터프렌즈를 운영하며 대중과 문턱 없는 소통을 이어온 덕분이다. 이들 세 명의 친구가 합심해 만든 닥터프렌즈는 의학전문 인기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는 “ 쌤, 싸인 좀 해주세요 ”라는 팬들의 요청도 잇따른다.

유튜브로 만나는 세 명의 의사 친구

2022년 3월 기준 닥터프렌즈는 구독자 수 77만 4천여 명, 누적 조

회 수는 1억 4,500만여 회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5월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후 4년 사이 놀라운 기록을 쌓아온 것이다. 우창윤 교수는 ‘친구끼리 수다 떨 듯 가볍게’ 접근한 덕분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을 이어갔다.

“셋이 만나 수다 떠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카메라를 켜놓고 해보자’라며 시작했어요. 각기 다른 분야 의사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대중들이 의학정보를 편하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에도 ‘프렌즈’라는 넣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의사가 직접 “의사도 병원 가면 의사라고 밝히나요?”와 같

은 질문을 던진 것도, 의학드라마 리뷰를 한 것도 최초였기 때문이다. 이어 닥터프렌즈는 의학 게임 실시간 중계, 인플루언서 인터뷰 등의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의학 유튜브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일례로 수술 게임은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다중 인격과 트라우마 등을 다루는 게임 실시간 중계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이렇게 대중과 부쩍 가까워지면서 우창윤 교수를 비롯한 3인방은 ‘친구같은 의사 혹은 의사인 친구’라는 최초의 취지를 잘 지켜가고 다짐했다. 실제로 우창윤 교수는 “제 친구들만 봐도, 명의로 손 꼽히는 분이 TV에 나와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야 합니다’라고 할 때보다 친구인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만큼 친근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의학 콘텐츠로 좁힌 환자와의 거리

현재 닥터프렌즈 채널에는 ‘의사가 환자가 된다면?’, ‘K-pop 가사분석 시리즈’ 등 제목만 봐도 흥미진진한 영상들이 빼곡하다. 바쁜 의사 생활 중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비결에 대해 이낙준 원장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셋이 나누는 대화, 헬프님들의 요청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의학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새로운 시도가 쉽지는 않지만 구독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낼 때 느끼는 ‘소통의 즐거움’이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소통의 즐거움은 진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자들의 입장을 생생히 이해하게 된 덕분이다. 우창윤 교수는 댓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제 진료에 적용하며 환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진료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콘텐츠 아이디어로 이어왔다.

“닥터프렌즈 덕분에 환자분들이 식이나 일상생활 관리 등을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해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 환자분들도 의사인 제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더라고요.”

닥터프렌즈는 의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도 해소해 나간다. ‘의사도 사람이었어’, ‘의사는 무섭지만 했는데 세 사람을 보니 안 그런 것 같다’ 등의 댓글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열렸던 팬미팅과 강연장을 가득 채운 구독자들의 열기가 그 증거다.

다양한 시도로 의학 대중화에 앞장 설 것

구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듯 닥터프렌즈는 2018년 한국조혈모



영상 촬영 후 편집 의견을 주고받는 오진승 원장, 이낙준 원장, 우창윤 교수(사진 왼쪽부터).

세포은행협회를 시작으로 우창윤 교수가 일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과 취약아동 등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다. 이에 구독자들은 닥터프렌즈의 이름으로 소아백혈병재단에는 헌혈증을, 국경없는의사회에는 후원금을 보내며 이들의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탤다.

이렇게 닥터프렌즈가 영향력이 커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겠다는 질문을 던지자, 오진승 원장은 “저희 같은 의사들이 항상 환자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저희도 사람이니 칭찬 댓글에 우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평범한 보통 의사’라는 사실을 되새겨요”라며 자세를 다잡았다.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는 이낙준 원장은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올해 중에는 저희 영상과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준, 오진승 원장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형”이라 말하는 우창윤 교수는 닥터프렌즈의 본질을 곱씹었다.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과학이 의학인데 아직까지는 막연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즐기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학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다 보면 대중 의학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날도 오지 않을까요?”

닥터프렌즈의 등장은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던 ‘친구 같은 의사’를 현실 속으로 불러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는 ‘보통 의사’임을 거듭 강조한다. 인기에 들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계일 것이다. **글 최주연**